

# ‘연대·나눔·희망’...세월호 유족 청소년 지원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배상금 활용  
‘4·16 청소년지원기금’ 2천만원 전달  
청소년 16명 치료·생활·교육 등 도움  
올해 대상·금액 확대...38명 후원 예정

세월호 참사 피해 유족들이 마련한 기금이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15일 4·16재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4·16 청소년지원기금’을 조성해 청소년 후원에 나서고 있다.

해당 기금은 같은 해 단원과 회생자 7명의 유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배상금 중 일부인 2999천 750만원을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기탁하며 만들어졌다.

재단은 매년 금액의 일정 규모를 지원금으로 편성, 1년에 걸쳐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안산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16명에게 총 2



4·16재단은 지난 1년간 ‘4·16청소년지원기금’을 통해 청소년 16명에게 총 2천만원을 후원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10일 4·16재단이 진행한 협약식 및 지원금 전달식. (4·16재단 제공)

천만원을 지원했다.

재단은 지원금 활용의 자율성이 높아 청소년들의 삶에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단이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여러 청소년이 지원금으로 공모전 참여, 대학 진학, 검정고시 합격 등 진로와 연계한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각종 취미생활에도 사용됐다. 자해 위험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치료를 병행하다가 지원금 덕에 드림을 배우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삶의 의욕을 회복한 한 청소년의 사연도 전해졌다.

이에 4·16재단은 올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해 청소년 38명에게 총 3천200만원

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지원금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누군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인식과 경험이 큰 힘이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4·16재단 관계자는 “4·16청소년지원기금은 참사로 큰 아픔을 겪은 가족들의 마음이 또 다른 세대를 향한 희망으로 이어진 소중한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지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조직사업부장은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의 뜻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청소년들이 희망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4·16재단은 세월호 참사 피해 유족과 시민들이 2018년 5월 발족한 비영리 민간재단으로 추모, 재단 피해자 지원,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문화 개선, 청소년·청년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형우 기자



## 광주회생법원-캠코 ‘재기 지원’ 협약

광주회생법원은 15일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과 “파산재단 자산의 효율적 환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은 관할 지역 내 지원 대상 회생기업을 추천해 캠코가 지원하는 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에 협조한다.

캠코는 추천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자금 대여와 지급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광주회생법원 관계자는 “양 기관은 회생기업 지원을 위한 개선 과제 발굴과 공동 연구,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라며 “지원 강화로 더 많은 기업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재영 기자



## 전남개발공사, 지역개발·동반성장 ‘대상’ 수상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자랑스러운 기업 & 소비자가 좋아하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개발·동반성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월간과워코리아가 주관한 2026 자랑스러운 기업 & 소비자가 좋아하는 브랜드 대상은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 신뢰 기반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청렴 경영,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지역사회 동반성장 실현을 통해 공공 가치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모범 모델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시원 기자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고 부패방지 부문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청렴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2026 자랑스러운 기업 & 소비자가 좋아하는 브랜드 대상 수상은 도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가치 창출에 힘쓴 공사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데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 세계여성평화그룹 목포지부,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목포지부는 “최근 목포 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일대에서 소속 회원 40여명이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기후 변화와 생태계 훼손을 잠재적 분점 원인으로 규정하고, 환경 보호를 지속 가능한 평화 운동으로 연계하려는 단체의 핵심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부두 주변 해수면에 유입된 폐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해양 오염의 실태를 점검했다.

단체는 향후 정기적인 해양 정화 작업을 정례

화하고, 지역 관광 자원 보호를 위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선아 IWPG 목포지부장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바다를 지키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단체와 연대해 기후 위기 극복과 평화 실천 운동을 적극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글로벌소통국,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국제 NGO로, 122개국 115개 지부와 68개국 900여개 협력단체와 함께 세계 평화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정혜선 기자

## SH수협은행 전남금융본부 ‘사랑의 제빵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최근 SH수협은행 전남금융본부 임직원 13명이 적십자사 광주봉사관을 찾아 ‘사랑의 제빵 봉사’ 활동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협은행의 ‘희망나눔베이커리’ 사업의 일환인 이번 봉사활동은 나눔 문화 실천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수협은행 직원들은 빵 반죽부터 굽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으며, 완성된 빵은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간식으로 전달됐다.

김지현 SH수협은행 전남금융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활동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성 기자

## 담양농협, 원로조합원에 ‘사랑의 밑반찬 나눔’

담양농협은 “최근 친환경급식센터 일원에서 김범진 조합장과 김현숙 부녀회 총회장을 비롯한 부녀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진 원로 조합원들에게 정성껏 조리한 밑반찬을 나누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로컬 매장에서 수급한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활용해 열무김치를 담았으며, 담양 읍과 용면, 월산면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원로·명예조합원 305명에게 전달했다.

특히 각 영농회 담당 직원과 부녀회장들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반찬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꼼꼼히 살피는 등 밑차



원을 병행했다. 김범진 조합장은 “오늘의 농협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원로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복지 환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 광주 북부경찰 우산지구대-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광주 북부경찰서 우산지구대는 지난 14일 북구 중흥1동 일대에서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야간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순찰은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역 주민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순찰을 요청한 골목길과 공원 등을 주요 동선에 포함시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벌였다.

또 순찰 과정에서 범죄 취약 요소와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을 향후 치안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용복 우산지구대장은 “자율방범대 등 민간



협력단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 동신대-한국애견연맹 ‘반려동물 산업 인력 양성’ 맞손

동신대학교는 “최근 교내 대정도서관 3층 누리실에서 (사)한국애견연맹과 반려동물 산업 발전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반려견 행동교정 및 훈련 ▲애견 미용 ▲팻푸드 등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협력할 예정이다.

전월남 한국애견연맹장은 “반려동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신대 반려동물학과와 협력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할 미래가 기대된



다”면서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 장흥경찰-자율방범대 ‘협력치안 간담회’

장흥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천관마루에서 김경호 서장과 장흥군 자율방범연합대장, 각 읍·면·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협력 치안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야간 취약 시간대 합동 순찰 활동 강화, 범죄 사각지대 집중 관리, 주민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행사에서는 올해 1분기 우수 대원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병행돼 선제적인 순찰 활동과 범죄 예방 기여도, 지역사회 봉사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된 우수 대원들에게는 경찰서장 명의의 감사장이 전달됐다.

김경호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주민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민·경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장흥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록 기자



## 광주 남부경찰, 보행자 교통안전 캠페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남구 진월동 소재 서문대로 시티브링 앞에서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행자 사망사고 급증에 따라 남구, 모범은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가 협업해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무단횡단 금지’ 문구가 적힌 피켓과 어깨띠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교통경찰 등이 수신호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유도했다. 또 무단횡단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했다.

김종득 남부경찰서장은 “무단횡단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며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한 보행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서형우 기자

## 결혼

▲권영일·최미주씨 아들 오현군, 김준수(광주 교통공사 경영본부장)·박미경씨 딸 다솜양=26일(일) 오후 2시 라온제나 강남 8층 플로렌스홀(서울 강남구 학동로47길5), 010-5265-5250.